

70여 년 기다림 끝에...故 손중철 일병, 아들 품에

보훈처·국유단,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올해 네 번째 신원확인 6·25 전사자
귀환패·유품 담긴 '호국의 열함' 전달



고(故) 손중철 일병의 생전 모습. 국방부 제공

6·25전쟁 당시 영천 북방 보현산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손중철 일병이 70여 년의 긴 세월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5일 경북 안동에서 손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했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

자 유해를 찾아 신원 확인 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는 국방부, 보훈처, 지역·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는 귀환행사는 신원확

인통보관 입장으로 시작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에게 손 일병의 전사자 신원확인통지서를 전달하고 유해발굴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호국영웅 귀환패와 전사자 유품이 담긴 '호국의 열함'은 보훈처 이남우 차장이 호국의 영웅을 최고의 예우로 맞다는 의미를 담아 직접 전달했다.

국유단에 따르면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시작된 200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161분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손 일병은 올해 네 번째 신원확인 전사자다.

2009년 유해가 발굴된 손 일병은 발굴 10년 만에 아들 손태규 씨가 우연히 TV에서 시료 채취 홍보 문구를 본 뒤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하면서 신원이 확인됐다.

손씨는 "설마 시료 채취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모른다"며 "우리 같은 유가족들을 위해 앞으로도 국유단에서 전사자 유해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유단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료 채취 동참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임채무 기자



지난해 개정·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관리묘역으로 첫 지정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및 광복군 합동묘역' 전경. 한재호 기자

수유리 애국선열·광복군 합동묘역 경기도 안성시 전몰군경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

국립묘지 외 장소 안장된 유공자 예우

국가보훈처는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및 광복군 합동묘역'과 경기 안성시 공설묘지 내 '전몰군경 합동묘역' 2곳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 유족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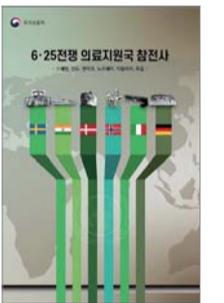
이에 따라 앞으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 안성 전몰군경 묘역은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향후 보훈처에서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곳에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고 묘역의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안내·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립묘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유족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에 산재해 있는 합동묘역을 추가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수유 국가관리묘역에는 김창숙·손병희·신익희·여운형·이시영·이준 등 독립유공자 32명이 안장돼 있으며, 안성 사곡 국가관리묘역에는 6·25전쟁 참전용사 58명이 안장돼 있다. 임채무 기자

6·25 참전사 증보판 출간 의료지원국 독 추가...3개 국어 발간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의료지원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운 독일의 참전사(史)를 발간해 주한독일대사관에 전달한다.



보훈처는 25일 "황기철보훈처장이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을 방문해 미하엘 대사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독일 참전사는 2020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 기존 '의료지원국 5개국'에 독일을 포함한 참전사를 증보판(한글·영어·독일어)으로 출간한 것"이라고 밝혔다.

6·25전쟁 유엔 참전국은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5개국 등 21개 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2018년 6월 정부가 독일을 의료지원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보훈처는 이번 독일 참전사 발간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22개 참전국에 대한 참전사 발간을 모두 마치게 됐다.

6·25전쟁 당시 독일 의료진(서독적십자병원)은 1954년 4월부터 1959년 3월까지 약 5년간 30만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나 독일의 의료지원이 정전협정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2018년 정부는 독일의 의료지원 활동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해 6월 6·25전쟁 68주년을 계기로 독일을 의료지원국에 포함했다.

이번 발간된 참전사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으로 인쇄돼 독일대사관과 참전협회 등 유관 기관에 발송된다. 보훈처 홈페이지에도 PDF 형태로 게시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6·25전쟁을 '잊혀진 전쟁이 아닌 영원히 기억되는 전쟁'으로 만들 것"이라며 "특히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후대에 전승하고 기억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기품원 대군근접지원반 본격 활동

야전배치 군수품 관련 소요 현장서 지원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대군근접지원반이 25일 개소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품원은 24일 강원도 인제군 소재 국방중합시험단에서 방위사업청, 기품원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군근접지원반 동부지역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대군근접지원 업무는 야전에 배치된 군수품에 대해 소요군이 제기하는 사용자 불만과 품질개선 소요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품원은 지난해 5월 대군근접지원업무 시범사업을 추진, 각 부대로부터 신속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기품원은 군의 장비 가동률 향상을 위한 사용자 관점의 적기 근접지원업

무를 기반으로 군수품의 품질 개선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연도별로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서부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소식을 주관한 기품원 서재현 생산품질경영본부장은 "전력화 장비가 집중 배치된 전방지역에 대군근접지원반 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각종 군수품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요군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상시 군 전투력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국방·안보의 모든 것

KOOKBANG dema.kr

인트라넷 kdd.dema.mnd.mil